

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

(1996. 3.20~4.20)

3. 23

재정경제원, 「금융산업 개편 방안」 등 금융 정책 방향 제시

- 은행·보험·증권의 3대 금융권의 본업은 자회사 진출을 통해 가능하고, 부수 업무는 업무 인가 확대를 통해 영위
- 투금, 증금, 리스, 신금 등 제2금융권 내부에서의 업무 영역 제한을 조기에 철폐

3. 25

재정경제원, 「신용금고 합병 촉진 방안」 마련

- 신용금고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금고간 합병을 유도하는 「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」을 마련, 4월부터 시행
- 자기 자본이 매입 대상 금고 자기 자본의 1 배 이상이고, 최근 3 년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신용금고는 같은 지역의 금고를 자유롭게 합병 가능

3. 25

재정경제원, 「주식 장외 시장 발전 방안」 최종 확정

- 4월부터 은행 신탁 계정의 장외 시장 등록 주식 매입 및 증권 회사의 장외 등록 주선 수수료를 자유화
- 장외 등록 기업 가운데 주식 분산 우량 업체의 직상장 요건이 소액 주주 2,000 명 이상에서 1,000 명 이상으로 완화

3. 25

재정경제원, 해외 증권 투자 자유화

- 4월부터 일반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 대상 및 한도 제한 철폐
- 그러나 1 개 증권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하고 개인은 10억 원, 일반 법인은 20억 원 이상 투자시 국세청에 명단 통보

3. 28

통상산업부,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대책 마련

- 외국인들에 대해 주거용 부동산 매입 및 의료 보험 가입 허용
- 전기·전자, 정보 등 고도 기술 분야의 기업을 선정 후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 지속

3.28

재정경제원, 1997년 예산 72조 원 규모로 편성

- 일반 회계와 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를 합한 예산 규모가 1996년보다 14% 정도 증가
-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경상 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공 부문에도 목표 제시와 성과 평가 등의 경영 개념 도입

4.2

통상산업부, 자본재 산업 육성 전략 품목 311 개 지정

- 올해 안으로 총 2,000억 원의 산업 기술 개발 자금을 연리 7%로 전체 개발비의 80%를 융자 지원
-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 단계에 있으나 설비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67 개 품목을 고시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은행의 시설 자금을 우선 지원

4.8

재정경제원, 「외환관리규정 개정안」 마련 6월 시행

- 해외 이주 정착비 한도 확대(현재 가구주 20만 달러, 가구원 1인당 10만 달러 → 가구주 40만 달러, 가구원 1인당 20만 달러)
- 전년도 수출 실적의 10% 이내로 되어 있는 대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 한도도 15%로 증가됨

4.9

노동부, 고급 인력 풀(Pool)제 7월 시행

- 민간 기업이나 정부 투자 출연 기관에서 정년·조기 퇴임하는 임원급이나 중견 간부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재활용
-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설치, 고급 인력 풀 업무를 총괄 운영

4.18

한국은행, 4월 23일부터 지급준비율 인하 시행

- 현행 평균 9.4%에서 7.4%로 2.0%포인트 인하
- 기준율 인하에 따른 2조 7,500억 원의 통화를 전액 통화 안정 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

4.18

재정경제원, 은행신탁제도 개선

- 은행 신탁 상품 최저 만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장기화
- 중도해지 수수료 인상(0.75~1.75% → 2.0~3.0%)
- 확정 배당 상품(개발신탁)의 단계적 축소